

하림 삼계탕, 캐나다 · EU 공략

캐나다 실사단 1박 2일간 걸쳐 하림 익산 · 정읍공장 현지실사 진행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 삼계탕이 국내 최초로 캐나다·EU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하림은 지난 10일 캐나다 실사단 이만 디프 팀장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이 1박 2일간의 걸쳐 하림 익산·정읍공장 도계장과 육가공공장, 사육 농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에 있어 캐나다 측은 (주)하림 도계장 및 육가공공장에 대해 HACCP 기준과 공정흐름도, 사용용수 관리, 해충 방제 관리, 원료육 및 용기 관리, 저온 살균기 및 온도 관리, 제품 이력추적 시스템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봤다.

특히 2일째인 사육농장 방문에 있어서는 농장 설비 시스템에서부터 사육

관리 프로그램, 사료관리, 항생제 관리, 음용수 관리 등 삼계탕 주원료인 닭고기 생산관리 등에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주)하림의 삼계탕 캐나다 수출을 위한 심사에 앞서 EU 시장 진출을 위한 심사도 지난 6월 27일에 이뤄졌다. EU 실사단들도 캐나다 실사단처럼 하림의 도계장과 농장을 방문해 잔류물질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번 (주)하림 삼계탕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해 EU 시장 등 세계 어느 나라의 식품안전 수준도 맞출 수 있어 삼계탕 수출이 무난한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아 삼계탕 세계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하림 삼계탕이 국내 최초로 캐나다·EU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삼계탕 미국 수출을 위한 경험을 토대로 EU를 비롯해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주)하림

삼계탕의 우수성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식문화의 대표 음식을 자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부귀농협,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

전북농협은 19일 여산휴게소에서 부귀농협(조합장 정종욱)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 (사)휴게시설협회(회장 진효근)간 '미아·미생 김치 공동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귀농협(김치공장)과 한국도로공사간 업무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물기동향에 대한 이해와 협력 ▲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한국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상호협력 및 교류강화의 중요 내용을 담고있다.

이호경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본부장은 "대표적 로컬푸드인 농협김치를 고속도로 휴게시설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김치 주주국의 위상을 펼치고,

한국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북농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중국산 저가김치와 중국산 양념 김치와의 저가 경쟁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협력을 위한 부귀농협 김치를 선택한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협회에 감사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농협김치 공급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귀농협 김치공장(공장장 임종규)의 미아산 김치는 100% 우리농산물(관내농가 계약재배)을 사용,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유의 전통방식(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엄격한 위생관리(HACCP)를 통해 생산, 1만평의 대지위에 생산공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우리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전북농협,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전국 2위' 달성

이상 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 지속적인 경영성과 이뤄

전북농협은 최근 중앙본부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종합회 전국 2위, 경제지주는 전국 1위 달성하고, 표창배(농협중앙회장 김병원)를 시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2위를 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위를 달성함으로써, 지역 농·축협 조합원은 물론 농업인과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증대, 연도말 도약적인 경영성과의 전망을 밝게 했다.

전북농협의 2위 달성은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등 전(全)사업부문에 걸쳐 우수한 경영성과의 결과다.

또한 조기 사업착수 등 각 부서별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각 사업을 수취가제고, 경영비 절감, 직·간접지원 등 재분류 후 업무추진과 진도분석을 했다. 아울러, 농·축협의 종합컨설팅을 실시·자금지원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지자체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실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19일 종합업적 평가 하반기 추진 보고회에서 "상반기 업적평가 2위 달성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분석, 세밀하게 추진하여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전북농협, 폭염 피해 축산농가 방문 위로 · 애로사항 청취

전북농협은 19일 최기현 김제시지부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과 함께 폭염 피해를 입은 김제시 용지면 신리계 농장을 찾아 축산 농가위로, 피해현황 점검 등 현직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닭, 오리, 돼지) 등 가축 31만6000마리가 폐사, 전

국적으로 축산업 피해가 전년 대비 약 30%이상 증가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하여 농축산물 피해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안전과 가족 및 관련 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하림, 닭갈비 레시피 공개

간편하게 즐길수 있는 '치떡치떡' · '치킨 그라탕' 음식에 관심 많은 20대 10팀 선정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

(주)하림이 서울 라페트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쿠킹 클래스를 통해 여름 휴가철 이색 닭갈비 레시피를 선보였다.

지난 13일 열린 하림 쿠킹 클래스는 이색 닭갈비 메뉴로 즐기는 '청춘의 여름밤'을 주제로 요리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20대 10팀을 선정해 진행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하림 닭고기 양념육 제품으로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직접 배워보고 시식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

특히 최근 휴게소 인기메뉴로 손꼽히는 '소떡소떡'에 하림 닭갈비 간편식을 접목한 '치떡치떡'과 20대의 '단짠단짠' 입맛을 자극한 '치킨 그라탕' 레시피가 공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치떡치떡'은 양념된 닭갈비와 소시지, 떡볶이 떡을 꼬치에 번갈아 끼워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로 남녀노소 모두 맛있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치킨 그라탕'은 달달한 소스에 매콤한 치킨을 버무린 후 치즈를 듬뿍 올려 완성하는 메뉴로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곁들이기에 안성맞춤이다.

레시피에 사용된 하림 '춘천식순살 닭갈비'는 엄선된 국내산 순살 닭고기에 특제소스를 버무



려 춘천 닭갈비의 맛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는 양념육 간편식이다. 배를 발라내 조리하기 쉽고, 먹기도 편해서 가정은 물론 야외에서도 즐기기에 좋고 기호에 따라 순한맛과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주)하림 마케팅팀 김성근 담당자는 "이번 쿠킹 클래스는 여름 휴가지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며 "맛과 영양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색다른 하림의 닭고기 레시피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나눔축산운동 '복맛이 축산물 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사)나눔축산운동본부·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농협 전북지역본부 경제본부장(김영일)·농협 남원시지부장(심민섭)·남원시 노인복지관장(서철승)은 19일 남원시 금동 소재 노인복지관을 방문 나눔축산운동 복맛이 축산물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초복을 맞아 무더위로 고생하는 남원시 관내 어르신 40여명께 삼계탕을 준비, 무료 급식하는 나눔의 행사로 이환주 남원시장이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배식봉사를 함께 했다.

행사장에서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은 "축산업과 시민이 화합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은 깨끗하고 냄새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단체와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준비금사민 신뢰할 · 제 2018 - 다 - 37호 (상위일자: 2018. 1. 30 현재)